

HONG KONG LINER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현대 시각문화 박물관인 홍콩 M+뮤지엄 개관



홍콩 서구문화지구에 위치한 M+뮤지엄



뮤지엄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들

아시아 최초로 세계적 수준의 현대 시각문화 박물관인 홍콩 서구 문화지구의 M+뮤지엄이 지난 11월 12일 개관하였다. 20세기부터 21세기의 시각문화 컬렉션을 선보이는 박물관으로써 개관 오픈에는 홍콩, 중화권, 아시아 및 그 밖의 지역에서 수집한 훌륭한 시각예술, 디자인, 건축, 무빙 이미지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박물관 내 33개의 갤러리와 다른 공간에 걸쳐 약 1,500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다.

11월 11일 열린 개관식에서 캐리 램 행정수반은 홍콩의 서구문화

화지구가 세계적인 예술 및 문화 시설을 갖춘 통합 지구로 개발되고 있다면서 “홍콩의 새로운 시각예술 및 문화 박물관인 M+가 정식으로 문을 열면서 서구문화지구는 새로운 멤버의 입주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홍콩이 런던, 뉴욕과 같은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규모와 특별한 의미를 지닌 현대 예술 박물관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mplus.org.hk/en/

정도련 M+뮤지엄
부관장 겸 수석 큐레이터

“홍콩은 지난 10여 년간 예술과 문화의 주요 국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특히 예술 생태계는 상업 갤러리, 옥션하우스,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광범위해졌다. M+뮤지엄 개관은 이제 홍콩 예술 지형에도 골드 스탠더드의 정

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장소를 보유하게 됐다라는 의미이다. 뉴욕의 현대미술관, 런던의 테이트 모던, 파리의 퐁피두 센터를 생각해 볼 때 예술로 유명한 모든 대도시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주요 박물관을 항상 갖추고 있다. 홍콩 M+뮤지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아시아에서 가장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도시인 홍콩의 위상에 견줄만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홍콩의 밝은 미래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지난 9월 27일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보고서 '고유한 이점과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을 발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홍콩의 현재 비즈니스 환경과 이점을 진단 및 제시하고 중국 본토의 새로운 발전 패턴과 계획에 따라 홍콩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한다. 전체 보고서는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01 2020년 중반 홍콩 국가안전법이 시행된 후 홍콩 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즉시 되찾았다. 시민들의 삶과 경제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비즈니스 환경도 회복되었다. 올해 홍콩의 경제 실적은 견고하였으며,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7.8% 반등하였다. 3분기는 전년 대비 5.4%로 성장하였으며, 1~3분기 경제성장률을 합치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증가하였고 2021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6.4%로 조정되었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2021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최고점인 7.2%에서 4.5%로 감소하였다.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의 제도적 강점과 다른 내재적 강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0월 6일 '2021년 시정연설' 기자회견에서 캐리 램 홍콩 행정수반

02 홍콩의 편리한 비즈니스 환경과 탄탄한 금융 시스템은 국제기관들로부터 인정받았다. 올해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 보고서는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 홍콩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확인하고, 회복력을 갖춘 금융 시스템, 건전한 거시경제 및 신중한 정책, 제도적 체계에 대해 인정하였다. 올해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한 2021년 세계투자보고서는 홍콩이 유리한 조세 제도, 간단한 상장 절차, 자본 통제 부재, 적절한 제도적 체계 덕분에 아시아의 중요한 금융 중심지이자 중국 본토 투자의 관문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03 또한, 홍콩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력도 국제기관에서 줄곧 인정받고 있다.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1년 세계 경제 자유도 연간 보고서	전체 1위
‘규제’	1위
‘국제무역 자유도’	1위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전체 3위
‘보건’	1위
‘금융시스템’	1위
‘생산물시장’	1위
‘인프라’	3위
‘제도’	5위
국제경영개발원의 2021년 세계 경쟁력 연감	전체 7위
‘정부효율성’	1위
‘기업효율성’	3위

04 국가안전법의 시행에 대한 일부 외국상공회의소의 초기 우려는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심도 있는 설명과 실제 관찰을 거쳐 크게 불식되었으며, 현재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도전과 홍콩에서의 기회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영국,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상공회의소 모두 홍콩이 해외 기업이 사업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로 남아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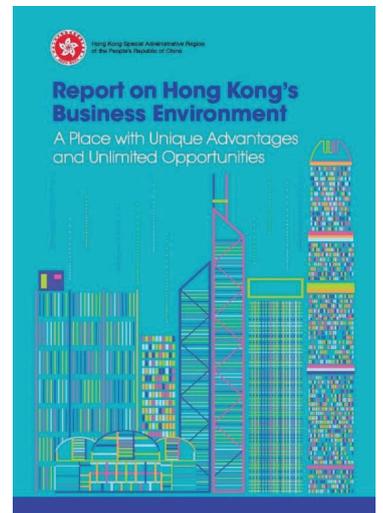
05 홍콩 내 외국상공회의소들이 표명한 신뢰는 홍콩의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국제기관들에 의해 인정받은 것에 기인한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 보고서	전체 3위
'규제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 지표	2위
'분쟁해결에 관한 법체계 효율성' 지표	3위
'사법부 독립성' 지표	8위
국제경영개발원의 2021년 세계 경쟁력 연감	전체 7위
'기업관련법' 하위 항목	1위
'법적·제도적 체계' 지표	3위
'부패비리' 지표	8위
'법치주의' 지표	15위

06 홍콩은 여전히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국제도시로, 세계 각국의 인재, 조직,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2021년 해외에 모기업을 두고 홍콩에서 사업 중인 기업의 수가 9,049개로 집계되어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했으며, 2017년 대비 10% 증가하였다.

07 홍콩은 홍콩을 지원하는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제14차 5개년 계획, 광둥-홍콩-마카오 대만 구 지역 개발, 첸하이 선전-홍콩 현대 서비스 산업 협력 구역의 포괄적인 개혁 심화 및 개방 계획,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국내외 쌍순환 전략)을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 발전을 추진하며 홍콩과 해외에서 온 기업과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국 본토의 방대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홍콩과 한국 기업의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08 금융, 교통, 무역, 항공, 기술혁신 분야뿐만 아니라 홍콩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법률 및 분쟁 해결 서비스 중심지로 육성하고 동서양이 만나는 국제 예술 및 문화 교류 허브이자 역내 지적 재산권 거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등 8개 분야에서 국제 중심지로 만들어 홍콩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과 이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이니셔티브가 2021년 시정연설에 제시되었다.



09 다른 나라 인재를 유치하여 홍콩을 8개 분야에 국제 중심지로 발전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 2021년 시정연설에서 인재풀을 풍부하게 갖추는 다음의 일련의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 전 세계 인재들의 홍콩 진출 장려를 위해 우수인재입경계획(Quality Migrant Admission Scheme)의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4,000명까지 두 배로 확대
- '자산관리 금융전문가'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전문가'를 재능 목록(Talent List)에 새로운 직종으로 추가
- 기존 직종 중에서 '의료 및 헬스케어 과학', '초소형 전자 공학', '집적회로 설계' 및 '예술 기술'의 전문가로 재능 목록(Talent List)을 확대 개편하고 법률 및 분쟁 해결 전문가에 대한 요건을 개선

10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 지역 간 인재의 양방향 이동 흐름을 강화하고 중국인이 아닌 홍콩 거주자의 대만구 지역 내 중국 본토 도시로 여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홍콩 내 외국상공회의소의 열망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2021년 시정연설에 포함되었다.

11 홍콩은 '일국양제' 하에서 중국 본토 도시와는 다른 경제 체제를 구축했으며, 고도로 국제화된 세계도시이다. 홍콩은 앞으로도 중국 본토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슈퍼 커넥터로서의 관문 역할, 고부가가치 서비스 플랫폼, 국제 인재 및 자본 풀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비즈니스 도시가 될 것이다. 홍콩은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홍콩 경제 성장의 이익을 공유하고 사업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홍콩과 협력하는 것을 환영한다.

홍콩, 세계랭킹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재선정 된 홍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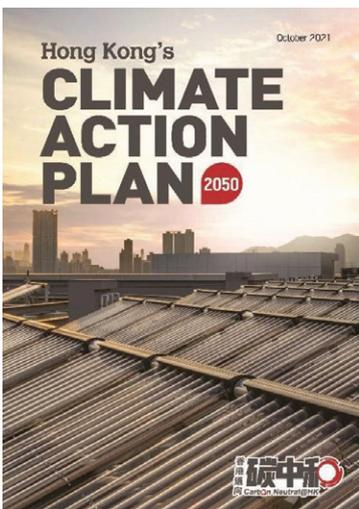
캐나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프레이저 연구소의 2021년 세계 경제 자유도 연간 보고서에서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로 재선정되었다. 홍콩은 1996년 첫 보고서 발간 이래 줄곧 상위권을 유지해 왔으며, 다섯 가지 평가 분야 중 '국제무역 자유도'와 '규제' 부문에서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금융센터지수 (GFCI)

영국의 Z/Yen과 선전의 중국종합개발연구소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최근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에서 홍콩은 올해 3월 발표보다 1계단 상승한 3위를 기록하였다. 세계금융센터지수 보고서는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며, 최신 보고서는 116개의 금융 센터를 평가하였으며, 홍콩은 3위를 차지하였다.



2050년 홍콩 기후행동 계획 발표



홍콩특별행정구정부는 지난 10월 8일 2050년 홍콩 기후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 제로,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과 목표를 밝혔다. 원캉싱 환경장관은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홍콩을 이끄는 새로운 계획은 네 가지 주요 탈탄소화 전략 및 조치(넷 제로 발전, 에너지 절약 및 녹색 건물, 녹색 교통, 폐기물 감소)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행정수반은 2021년 시정연설에서 2050년 홍콩 기후행동 계획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전략과 조치를 수립할 것이며, 2005년 대비 2035년까지 홍콩의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기 위해 보다 더 강력한 탈탄소화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 – www.climate-ready.gov.hk/

홍콩 내 해외 및 중국 본토 기업·스타트업 수 사상 최고치 기록

최근 연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본토를 포함한 해외에 모기업을 두고 홍콩에서 사업 중인 기업의 수가 9,049개 사로 증가하였고, 홍콩 내 스타트업 수도 2021년 3,755개 사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번 조사로 홍콩의 사업 환경은 변함없이 큰 이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들이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확장하기에 이상적인 장

소임을 확인하였다. 홍콩투자청과 정부통계처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조사에서 해외 기업(중국 본토 제외) 수는 일본 기업이 1,388개 사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단순한 세제와 저렴한 세율이 홍콩에 사무소 설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만화 x 영화·홍콩만화애니메이션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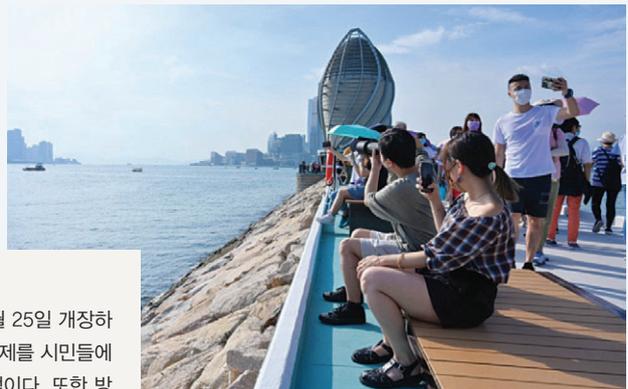


홍콩경제무역대표부가 후원하고 홍콩아트센터가 주최한 '만화 x 영화·홍콩만화애니메이션전'이 지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홍콩 만화 발전사를 소개함과 더불어 10명의 홍콩 만화작가에 의한 일련의 주제별 창작물도 함께 선보였다. 세계 하나밖에 없는 만화 분파로 홍콩 만화는 지난 6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홍콩 만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홍콩 만화작가들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홍콩과 한국 영화인 영웅본색, 괴물, 기생충 등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한 만화도 전시되었다.



SPOTLIGHT HONG KONG



빅토리아 하버를 따라 조성된 이스트코스트파크지구 개장

홍콩섬의 포트리스 힐 수변에 자리한 이스트코스트파크지구(1단계)가 지난 9월 25일 개장하였다. 지구 내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빅토리아 하버 최초로 약 100m 길이의 방파제를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홍콩의 멋진 해안선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방문객들은 방파제 끝자락에서 빅토리아 하버의 360도에 가까운 전경을 볼 수 있다.



활성화된 센트럴마켓 1단계 개장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한 센트럴마켓은 100여 개가 넘는 소매 및 식음료 매장과 함께 지난 8월에 문을 열었다. 건물의 역사는 184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003년부터 문을 닫았다가 이번에 복원작업 후 다시 홍콩의 활기찬 커뮤니티 중심이 되고 있다.